

법문집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지음 | 시공사 | 9천원  
40년 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 불좌(長坐不臥)의 수행과 정진으로 놀라운 참선의 경지를 보여준 청화 스님의 법문 가운데 10가지를 정리한 책이다. 스님 말씀은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이치를 강조한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의 길을 알아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법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참선의 공덕, 방법 등에 할애돼 있다.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 하다**  
달라이 라마 지음 | 문이당 | 1만원  
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중생들에게 전하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서.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당부한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의 과정 속에서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좋은 환생을 가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해준다.

**홀로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지음 | 샘터 | 9천8백원  
법정 스님이 그동안 말아왔던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회주직에서 물러나면서 펴낸 산문집이다. 진정한 '홀로 있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품에 깊은 매력을 느끼지만, 고립 속에만 머물러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숨통을 터주기에 충분하다. 현대인들의 고립감을 스님이 보기에는 넘침에서 오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겨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산문집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  
신경림 · 조오현 지음 | 아름다운 인연 | 9천8백원  
소박하고 순수한 내면과 세상에 대한 깊은 시선을 간직한 시인 신경림과 승속을 넘나드는 신비함으로 문학보다 더 문학 같은 삶을 살아온 오현 스님(백담사 회주)이 만났다. 시인과 스님이 거침없이, 꾸밈없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삶의 깊이와 순수함을 간직한 무유의 법문과도 같다.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깊은 울림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발견하게 해준다. 여행으로부터 수반되는 인생의 여정, 은밀하고 흥미진진한 사랑이야기, 사회적 이슈와 문제이기도 한 환경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스님이야기** 지옥 스님의 지음 | 여시아문 | 1만2천원  
2000년 1월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스님이야기'를 주려 엮은 책. 수행 · 복지 · 포교 · 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85명 스님들의 치열한 삶과 열정을 소개했다. 그 수행일화 속에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길상사 회주였던 법정 스님이 쓴 글에 사인을 받으려고 "스님, 한 말씀 써 주세요"하면 정말로 "한 말씀" 이렇게 쓰신다. 스님의 유머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어떤 유머가 좋은 노보살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니 즉석에서 이렇게 작명했다. '우량모(優良母)보살' 체격이 튼튼한 아이의 튼튼한 어머니로 적합하기에 '우량모' 라고 지으신 것이다.

**불서의 바다에 빠져보자**  
여름 휴가철 읽을 만한 책 10권

여름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이 강렬하다. 아직은 장마로 눅눅하지만 멀지않아 적열하는 태양과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불러낼 것이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애써 저항 말고 훌쩍 떠나보자. 벗삼을 책 한 두권 챙겨두고 시원한 숲속과 포효하는 바다가 책상 삼아 휴가지에서 불서를 펼쳐보자. 오히려 일상에서 그토록 짊을 내 읽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책들도 휴가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면 책장이 술술 넘어 갈 수 있다. 뭍은 시원한 바다에, 정신은 불서의 바다에 흠뻑 적셔보자.

일상에서 지쳐버린 정신과 육체를 바다와 불서에 행군다면 그 피로는 금방 희석될 수 있다. 추천 불서를 잡고 법음(法音)의 여행을 훌쩍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식을 줄 모르는 열대야도 금방 사그러들 것이다. 이번 여름휴가의 냉매제로 영풍문고와 교보문고, 책방 여시아문 등에서 베스트에 올라 있는 불서를 장르별로 추천한다.

학술·교리서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은 스님 랜덤하우스 중앙 | 1만원  
문외한도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비구니 소은(素雲·42·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스님이 말하는 불교는 어렵지 않다. 하룻밤이면 된단다. 그래서 제목이 <하룻밤에 읽는 불교>다. 이 책은 인도와 중국, 한국, 티베트, 일본 등의 불교를 시대 순으로 소개하고, 초기불교사상과 중관사상, 유식사상, 화엄사상, 천태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등을 차례로 설명해 놓았다. 주장을 담지 않고 개념과 역사를 망라한 대중 개론서인 셈인데, 사진과 지도 등 시각 자료가 많아 제목처럼 하룻밤에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육조혜능 평전** 이은운 지음 | 여시아문 | 1만2천원  
불학적인 연구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혜능과 <단

경>에 대한 연구' 스타일에서 벗어나 혜능의 선사상이 성립·발전하게 된 사회사적 측면까지 시선을 넓히며 혜능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혜능과 그의 사상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근, 최근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모택동의 혜능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혜능의 설법을 모체로 한 <단경>을 살펴, 혜능의 출생과 생애와 관련한 논쟁 및 단경의 작자와 개작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어 혜능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만 하다.

**불교가 좋다**  
기와의 하야오 지음 | 동아시아 | 1만2천원  
인문학의 관점에서 종교를 아우르는 최초의 불교 대담집이다. 일본 융 학과의 선구자이자 동양적 심리학의 개념을 주창한 현 문화청 장관 기와의 하야오와 인문학계의 선두주자로서 종교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전방위 사상이 나카자와 신이치가 불교를 중

심에 두고 나는 대화를 기록했다.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동·서양 문화와 학문의 경계를 허나씩 무너뜨려가는 작업을 시도한다. 개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대과학의 원리를 '관계'의 논리로 회복하고, 과학(구체적으로 양자론)과의 만남을 통해 '자율'과 '조화'의 원리를 이끌어낸다.

철지순례서

**세계의 붓다** 마이클 조든 지음 | 공리 | 2만3천원  
불교미술을 따라 붓다의 행적을 좇고 세계 사원을 순례하며, 불교미술에 나타나는 상징과 유래를 밝힌 책. 거대한 암벽, 산파대기, 강가 절벽 등지에 하늘이 나무와 어울려 있는 불상과 사원의 사진 200여 컷을 풍부하게 수록해 읽기가 지루하지 않다. 1부에서는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열반지인 쿠시나가라까지를 돌아보며 붓다의 행적을 쫓는다. 2부에서는 붓다가 태어난 인도부터 네팔, 스리랑

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한국까지 아시아를 가로질러 불교가 전래하고 발전한 과정을 추적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불상의 머리, 백호, 만다라 등 불상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세세히 짚었다. 부록으로 용어 설명과 본문에 나온 가볼만한 곳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뷰티풀 티베트여행** 이태훈 | 다룬세상 | 1만6천원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적박한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일구고 사는 티베트 문화 여행서다. 티베트와 라다크, 네팔 등지에 살고 있는 티베트의 삶과 터전이 250여 컷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그들의 의식주, 종교, 문화, 역사, 자연, 유적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만년설로 덮여 있는 히말라야 산군들을 바라보며 걷는 산행의 즐거움뿐 아니라 저자가 추천하는 여행 코스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여행 가이드 북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경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수행자의 멋진 생활 엿보기**

법정 · 지유 · 정원 · 서암 · 진공 스님 등  
85명 스님들의 감동적인 수행일화

**스님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 (여시아문)는 지옥·효림·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꽂이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천행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좌(長坐不臥),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결어지 지켜본 큰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은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잔잔하게 표출된 이 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종교는 내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황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거 같다."  
-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중에서